

2013
10

이달의 주요뉴스

세계중문신문협회 총회에서 위원장 특강
언론중재위-국방대 업무협약 체결

인터뷰

임권택 (동서대 석좌교수, 영화감독)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60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중화권 언론인, 한국의 언론조정제도에 큰 관심
세계중문신문협회 총회에서 위원장 특강
언론중재위-국방대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교육 업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04 인터뷰

“인간을 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영화에 담고 싶습니다”
- 임권택 (동서대 석좌교수, 영화감독)

07 위원단상

‘신바람’ DNA

08 인문학 산책

주역에서 배우는 ‘길흉화복에 임하는 자세’

09 신 동의보감

치주질환 예방, 장수와 웰빙의 지름길

10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뒷고기 드시옵서예”

11 조정후기

초상권, 당사자 동의 여부 꼭 확인해야

12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13 위원회 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언론인, 한국의 언론조정제도에 큰 관심 세계중문신문협회 총회에서 위원장 특강



권성 위원장이 9월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세계중문신문협회 서울총회에서 '한국의 언론조정제도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9월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세계중문신문협회 서울총회에서 '한국의 언론조정제도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권 위원장은 “모바일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여론의 쓸림현상을 방지하고 사회적 중심을 회복하는 데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의 언론조정제도가 사회적 쓸림현상을 바로잡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사회구조가 다원화·전문화될수록 분쟁은 더 증가하고 첨예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이 아닌 다양한 장점을 가진 ADR(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참석한 중화권 언론인들에게

ADR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의 법적 효력’, ‘손해배상 인용 정도와 범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언론조정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강연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세계중문신문협회 회원사 대표 150여명을 비롯해 한·중 정부 관계자, 언론·경제단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언론중재위-국방대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교육 업무 상호 협력 체제 구축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9월 12일 국방대학교(총장 박삼득 육군중장)와 교육분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국방대에 언론분야 교육 제공, 상호간 교육 업무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 체결로 언론중재위원회와 국방대는 교육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협약식에서 권성 위원장은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언론분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삼득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방대 교육생들이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언론분야 교육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와 국방대의 상호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발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삼득 국방대 총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간을 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영화에 담고 싶습니다”

임권택 (동서대 석좌교수, 영화감독)

- 전남대 문학영예박사
- 한국영화연구소 초대 이사장
-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수상
- 제55회 칸영화제 감독상
- 제5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명예황금곰상
- (현)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석좌교수



한국인의 삶, 한국인의 정서로 세계에 우리 영화를 알린 한국영화계의 거장(巨匠). 50년이 넘는 세월을 영화만을 위해 살아온 인본주의자 임권택 감독을 만났다.

●●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 인물로 감독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감독님의 작품 101편 중 상영 가능한 70여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만 제 작품 중에 객관적으로 이뤄낸 성과로 보면, 물론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편제’는 우리 소리를 통해 ‘우리’를 되짚어 보게 해줬다는 관객들의 평가가 있어 나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서편제’ 같은 판소리 영화를 만들라고 신이 계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감독 데뷔 작품인 ‘두만강아 잘 있거라’가 흥행을 하고 몇 년 뒤 전라남도에서 그 지역 판권을 가지신 분이 낮부터 기생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좁은 방에서 판소리꾼이 소리하고 아쟁과 가야금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열이 빠졌지요. 가슴이 멍하더니 온 몸에 전율이 오더라구요. 그 때 언젠가는 판소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그런데 제작 여건이 쉽지 않았어요. 1992년이 되어서야 ‘서편제’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제야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작품 고르라면 ‘취화선’이겠네요. 이 작품은 칸에서 수상하기도 했으니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특히 칸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라 세계적으로 배급까지 되어서 한국 영화계로 보면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 서편제, 천년학, 춘향전을 보면 우리 전통의 소리를 찾는 길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도의 흙길을 거닐면서 우리의 소리를 전해주는 장면이 유독 관객들의 뇌리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임권택 영화박물관에 ‘세 가지 화두’ 중 첫 번째가 ‘길의 미학’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길을 통해서 미학적 성취를 얻고자하는 것은 없었어요. 다만 제 자신의 삶 자체가 방황하는 기류의 인생이었고 의식 자체도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의지처가 없었기 때문에 정처없이 떠돌아다녔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정처없이 떠도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길은 삶이고 구도이자 그 자체로 생활공간인 셈이지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 자기 완성 또

는 자기 형성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만그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 영화에는 몇몇 영화를 제외하고는 영웅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인 길을 통해 우리 삶을 그려보고자 했지요.

● ● 세 번째 화두는 일본의 철학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일본의 주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감독님 작품 중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악몽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일제 치하 때부터 해방 전후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신탁통치 찬반 논란이 있을 때에는 밤에 배라를 뿌리기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밤에 아버지를 잡기 위해 형사들이 일본도를 들고 구둑발로 방에 들어온 적도 있었지요. 이념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남북이 전쟁까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작가인 페렌바하(T. R. Fehrenbach)가 쓴 ‘한국전쟁’이란 책을 보면 한국전쟁은 세계 열강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약소국의 비애지요. 그 책을 보면서 절실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제 영화 ‘짜코’는 이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인간을 희생의 발판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에서 일본의 철학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계속 유효할 겁니다.

● ●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유사가족 간의 조화와 사랑이 두드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족과 늘 떨어져 살았어요. 뽕뽕이 흩어져 산거죠. 해방 후의 혼란과 전쟁 통에 7남매가 전부 따로 자랐어요. 가정의 따뜻함 같은 것은 체험해 본 적이 없지요.

제 영화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살면서 감동할 일도 없죠. 감동은 감상의 탓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감상하게끔 두고 있지 않은데 무슨 감동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멜로 영화를 보면 삶 자체를 미화시켜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저는 거짓스러워서 못 찍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인간으로 커왔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을 영상화할 뿐이에요. 가족처럼 지내면 그게 가족이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 ●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지요. 혹시 감독님 영화 중 닮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인지요.

어느 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우리 국민을 존경합니다. 일제 강점치의 박해, 보릿고개 그리고 한국전쟁 등 희망없는 국민이라는 생각. 누대를 이어온 가난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소국.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일궈낸 우리 국민 모두를 존경합니다.

● ● 17세 연하의 부인과의 인연이 화제였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는 ‘임 감독의 묘령의 여인’이라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부인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요검’이라는 액션영화를 제작하는데 원래 캐스팅 되었던 여배우가 다른 일정 때문에 촬영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집사람은 MBC 텔런트로 합격해서 배우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영화사에서 집사람을 소개해줘서 촬영장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런데 배우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야한 장면이 있으면 못찍겠다고 하고 연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계속 혼났지요. 촬영 후에 다시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충무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심전심으로 좋아지게 된 거 같아요.(웃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영화감독이니 쉽게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집사람을 꼬실려고 했던 멘트도 하나 없었지요. 집 한 칸 없고 영화감독으로서도 별 볼일 없었는데. 인연이었던 거 같아요.

● ● 큰 아들은 영화를 전공했고, 작은 아들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반대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둘째 아들이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말을 듣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영화를 끈질기게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뼈를 깎는 인내심과 끈질김이 필요한데 제 아들에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영화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영화감독인데 한번이라도 우리 아들이 혹시 배우가 된다면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까 생각해 볼 만한데 한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영화배우를 지망했을 때에도 주위의 꼬드김에 넘어가 배우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 밤 지방에서 밤샘 촬영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둘째가 운전을 했어요. 차 안에서 처음으로 배우에 대한 생각을 물었지요. 어떤 배우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카리스마 있는 악역

을 맡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 놀랐지요. 연기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악역은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둘째는 눈에 기운이 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잘 본 것 같아 대견했지요. 그래도 감독인 아빠의 덕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둘째도 자신도 그럴 생각 없고 혼자 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우가 되려는 아들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해본다고 하더니 이름까지 바꿔 버리더군요.

●● 부산 임권택 영화박물관에 전시된 영화 ‘죽보’ 대본에 ‘검열대본’이라고 적혀있던데, 예전에 영화 제작할 때 사전 검열을 받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검열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영화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나리오 검열을 받고 영화 제작에 들어갑니다. 영화가 만들어지면 상영되기 전에 다시 검열을 받고요. 이렇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스스로 검열관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구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던 거죠. 이렇다 보면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영화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검열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영화를 즐겨야 할 권리가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든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검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이념이나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을 듯 합니다.

●●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관객들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한국 영화는 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발전에 감독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미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최근 몇 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를 보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고 수준 높은 한국 관객들도 외화보다는 한국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관객 수도 점차 높아가고 있어요. 외국 영화제에 가보면 우리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어요. 국내 감독의 안부를 외국 영화관계자들이 묻는 세상이니까요. 한국 영화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지요.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열정과 끼 그리고 내재되어 있던 엄청난 에너지를 이미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어요. 다만, 이 에너지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분출될 수 있어요. 억압

하고 구속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한국 영화가 잘나간다고 해서 방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잘 나갈 때 일수록 우리 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금씩 다져가면서 진척해 나가야지요. 우리 영화계가 아픈 곳, 모자라는 곳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배급사들의 독과점 현상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을 우리 사회 원로로서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진보 쪽 소리도 칭찬하고 보수쪽 소리도 찬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양쪽으로 편을 나눠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진보와 보수는 어찌보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면 너무 지나친 이념적 논쟁으로 민생을 도외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이 많아지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가 어느 편이냐는 이념적 논쟁을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가치인지를 우선적으로 두고 사회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 영화 한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져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감독님에게 ‘영화’란 어떤 화두입니까?

삶을 대변하고 우리네 사는 인생사를 투영하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조화롭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영화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바람’ DNA



김길소 위원
강원중재부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전)강원일보 논설주간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놀이문화’를 가꿔온 영특한 민족이다.

태고시대부터 24절기의 바깥에 따라, 같은 또래나 가족 공동체 구성원끼리 모이기만 하면 온갖 놀이를 즐겨왔다. 오죽했으면 동이전(東夷傳)과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마을과 골짜기마다 재미있게 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적었을까.

그러나 까마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래놀이가 이제는 거의 잊혀지고 사라져 버려 허전하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아직도 우수한 놀이문화의 ‘신바람 DNA’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구촌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꼭 노래방이 있다. 바다 건너 먼 곳으로 해외 나들이를 떠나더라도 따분한 걸 참지 못해 항상 가방 한구석에 화투 한 두 목 썩은 꼭 챙겨 가지고 나간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수 만명이 운집하는 야구장과 축구장은 우렁찬 응원가가 울려 퍼지는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살아온 무지렁이라고 하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북과 팽과리나 장구를 치면 어깨짓과 다리짓을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출 줄 알았다. 가히 “노세 놀아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랫말처럼 놀자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보듬어온 놀이는 6천여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놀이 문화들은 이를 마뜩잖게 여겨온 지배계층이나 외침에 의한 민족정신 말살 정책에 눌러 부침을 거듭해 왔다. 거기에는 “일하지 않으면 굶게 된다”는 강박관념을 앞세워 우리 놀이문화를 하찮게 여겨 억누르고 좌악시 하여온 감도 없지 않다. 고도 성장을 이뤄낸 산업주의 아래서는 나태로 낙인을 찍고 비뚤어진 도벽(賄賂)쯤으로 치부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농경이나 산업사회에서는 육체적 힘(power)으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바로 ‘워크하드(work hard)’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새로운 창의성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문화창조’의 시대이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오직 창의와 혁신 협업이 중요시되는 ‘워크스마트(work smart)’시대로, 상상과 창의성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급변했다.

인류사회는 끝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럴수록 소득과 여가시간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얼마전 미국 미디어 랩이 “오는 2020년에는 산업의 50%가 여가와 오락산업이 될 것이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산업의 절반이 ‘노는 문화’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새 심심풀이로만 여겨왔던 ‘놀이’문화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놀이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을 없애준다. 재미있고 아름답다. 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배우고 즐길 수 있다. 환희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젊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 안에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스릴과 모험이 스며있다. 누구나 마음 폭 빠지게 만드는 ‘골림’과 ‘썰림’이 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 가치가 듬뿍 담겨있다. 결코 놀이는 남는 시간을 맹목적으로 보내는 수단이거나 하찮은 재미만 쫓으려는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놀이문화’와 무관치 않음을 읽게 된다.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데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고 긍정의 눈으로 시야를 넓혀 가면서 삶(재미)을 즐겨온 국민성이 자리잡고 있다. 찌든 살림살이에 주눅이 들어 우리 삶의 알토란 같은 재미를 뒷전에 밀어 두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놀치’가 되지 않기 위해 가을 몸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신바람’에 다시 불을 지펴 본다.

주역에서 배우는 '길흉화복'에 임하는 자세

최효찬
칼럼니스트



역경에 처한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고 쓴 책을 사마천은 '사기'에서 '발분저서(發憤著書)'라고 했는데 문왕이 쓴 '주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썼다. 사마천의 '사기' 또한 자신의 성기를 잘리는 궁형을 이겨내고 쓴 발분저서



'주역'을 쓴 주 문왕(文王)

다. 때로 울적할 때 '사기'와 같은 발분저서를 읽으면 의욕이 되살아난다.

문왕(기원전 12~11세기)은 개인적으로는 참혹한 일들을 겪었다. 문왕이 사람들의 신망을 점차 얻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은왕 주(紂)는 문왕을 유리(羑里)라고 불리는 감옥에 가두었다. 문왕은 감옥에서 주역의 과사를 지었다. 주역은 문왕이 7년 동안 감옥에서 곤경을 이겨

내며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왕은 큰아들이 주왕에게 잡혀 가마솔에 넣고 끓여 죽이는 팽형(烹刑)을 당했는데 문왕은 자식을 삶은 국을 다 마셨다고 한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문왕은 64괘사를 지어 주역의 체계를 만들었다. 문왕은 '이(履)괘'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심정을 과사에 담았는데, '이호미(履虎尾)', 즉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격에 비유한다. 문왕은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천리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부질인(不咎人), 즉 호랑이에 물리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주역의 기본이론은 '음양론'이다. 음양론에 따르면 대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 하늘의 기운은 땅에 영향을 주고, 땅은 하늘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하늘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킨다. 하늘은 이것을 받아들여 변화하고, 그 변화를 다시 땅에게 주는 순환의 연속이다. 그 가운데 사람으로 대표되는 만물이 하늘과 땅의 교감작용을 받고 다시 자연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 교감 작용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자연의 도이며 그 과정을 64괘라는 틀 속에 넣은 것이 주역이다.

음양론의 변화이치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는 말로 요

약된다. 즉 우주 속에 벌어지는 변화상은 한마디로 한번 양이 되고 한번 음이 되는 과정의 순환이다. 음양의 변화이치는 하루로 치면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번성기가 가면 쇠퇴기가 오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道)'란 거창한 게 아니다. 한번 성하면 쇠한다는 자연의 법칙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다만 이때 음과 양이 반대의 관계에 있지만 서로 배척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서로 상대가 존재함으로써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를 '대대(待對)의 관계'라고 하는데 서로 달라서 맞서고 다르기 때문에 기대는 관계다.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말이다.

주역의 또 하나의 논리는 '극즉반(極即反)'이다. 하나의 상황이 극한에 이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상황 전환의 논리다. 즉 "큰 번고를 만나 극도에 달한 뒤에는 통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주역은 점의 결과가 길흉으로 표시되지만 길흉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길흉이란 인간의 행동에 따라 길한 상황에서 흉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고 흉한 상황에서 길한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연적인 부분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서구의 주역 전문가인 루 매리노프는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라는 책에서 "주역은 운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책"이라고 강조한다. 즉 주역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역에서 점을 쳐서 만약 64괘 가운데 좋지 않은 점괘가 나왔다고 하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주역은 설사 나쁜 괘가 나왔다 하더라도 누구나 나쁜 운명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운명이 좋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신무방역무체(神无方易无體)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중국의 현자로 불린 남회근은 '주역계사강의'에서, 첫째는 덕(德)이요, 둘째는 명(命)이요, 셋째는 풍수(風水)요, 넷째는 음덕(陰德)이요, 다섯째는 독서(讀書)라고 풀이한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삶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덕목을 가장 우선시하시지요?

치주질환 예방, 장수와 웰빙의 지름길



최 성 호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치주질환이란 어떤 병인가? 치주질환은 ‘치아 주변에 생기는 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얘기 하자면, 치아를 둘러싸는 잇몸(치은)과 치조골, 치주인대, 백악질 등에 생기는 염증이다. 염증의 원인은 주로 세균인데, 이 세균들은 치태와 치석 안에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어 서식한다. 병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치아가 마구 흔들려 이를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치주질환이다.

처음에는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잇몸이 근질거리며 붓거나 피가 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가 솟구치는 느낌을 받는데, 며칠간 지속되다가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폭 쉬면 증상이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그 후에 치료를 받지 않고 놔두게 되면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생겨 치과를 찾게 되는데, 이 때는 이미 중증의 치주병으로 이환되어 치아를 살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치주질환이 깊어지면 종국에는 치아를 뽑게 된다.

치주질환의 원인을 세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치주질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치주질환의 원인 세균이 군락을 이루어 사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스케일링’(Scaling, 치석제거술)이다.

치과에 가면 늘 스케일링을 권유 받는다. 정작 아픈 곳은 특정한 치아인데 스케일링 먼저 하자고 한다. 여간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그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 그 뿐인가?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 사이가 뽕 뚫려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때 마다 이는 더 시리고, 더 흔들리기까지 한다. 그런데, 왜 의료진들은 스케일링부터 하자고 할까? 바로 세균 때문이다. 어떠한 치과 치료를 하더라도 스케일링은 기본적인 치료다. 우리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질병이 낫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입안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다른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치주질환과 충치의 원인이 되는 치태를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3분 후부터 치태라고 불리는 프라그(Plaque)가 생성 된다고 한다. 적절한 칫솔질로 제거 되지 않으면 상주균들이 프라그에 달라 붙게 되고, 상주균은 치주염 세균들과 함께 바이오필름(Bio-film)을 형성 한다. 이 바이오필름은 칫솔질에 의해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며, 치주낭 내에서 염증을 일으켜 잇몸을 상하게 만드는데 이를 치은염이라고 하며, 치은염이 진행되어 치조골까지 염증이 내려가면 치주염이라고 한다.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를 잘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칫솔질의 횟수 보다는 시간이 중요하고 시간 보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 욕실에서 시간에 쫓겨 이를 닦는 것보다는 거실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있게 이를 닦는 것이 구석구석 꼼꼼히 닦을 수 있어 추천하는 방법이다. 혀에도 치태가 끼므로 혀도 꼼꼼히 닦아 주어야 한다. 전동칫솔과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 등 여러 가지 구강위생용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다. 잇몸약과 구강세정제도 치과 치료 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학회에서는 매년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치주병의 위험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3월 24일로 특별히 제정한 이유는 바로 3개월마다 생기는 치주낭 속 치주질환 세균 때문이며, ‘삼(3)개월마다 잇몸(2)을 사랑(4)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주병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3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하여 내가 구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치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치과 의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주병을 예방하는 일은 장수와 웰빙의 지름길이다.





뒷고기 드시옵서예

김성찬
기획팀



제주도는 3년 전에 처음 가봤다. 누구나 한번쯤 가봤을 법한 곳이지만 첫 방문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름의 계획을 세워봤다. 살펴보니 한두 번 방문한다고 제주도를 오롯이 다 즐길 수는 없겠다 싶었다. 허리도 좋지 않아 이리저리 발품을 팔 수도 없었다. 그래서 먹을거리에 집중했다. 제주도는 수려한 자연경관만큼이나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해산물, 흑돼지, 햄버거, 말고기 등 찾아갈 명승지가 많은 것처럼 먹을거리도 많아 첫 방문으로 모든 걸 맛볼 수는 없어 보였다. 제주도를 소개하는 여행 책자 몇 권을 뒤적이면서 취향에 맞춰 음식을 고르니 몇 가지로 추려졌다. 흑돼지 삼겹살, 고기국수, 돔베고기, 돼지두루치기가 그것이다.

첫날은 고기국수를 먹어보기로 했다. 여행 책자는 유명한 세 곳을 추천했다. 그 중 한 곳을 찾아갔다. 정말로 유명한지 가게 앞에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소엔 아무거나 먹자는 주의라서 그러지 않지만 제주도까지 여행 온 만큼 기다려보기로 했다. 30분쯤 기다렸을까 마침내 고기국수를 맛보게 됐다. 무엇보다 푸짐한 인심에 만족했다. 동행한 지인과 각자 한 그릇씩 주문했는데 하나로 나눠 먹어도 충분할 듯했다. 맛집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것에 비해 정작 맛이 없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대만족이었다. 평소 면류를 즐기는데다가 고기까지 얹혀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

다음날엔 돔베고기를 찾아 떠났다. 숙소가 공항 근처에 있는 터라 제주시내에 있는 가게를 택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택시에서 내리고도 스마트폰 지도를 길잡이 삼아 한참을 들어갔다. ‘돔베’는 제주말로서 ‘도마’라는 뜻이다. 도마 위에 돼지고기 수육이 올라온다고 보면 된다. 수육이라고 하면 그리 희귀한 게 아니라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지역색 짙은 작명 탓인지 완전히 다른 음식 같았다. 맛도 좋았다는 건 두 말할 나위 없었다.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흥대 앞 막걸리 집에서 돔베고기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눈치 챘겠지만 먹을거리로 고른 것들엔 모두 공통적으로 돼지고기가 포함돼 있다.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내 취향 탓이다. 그런 점에서 온전히 흑돼지 삼겹살만 먹는다는 건 순수함에 대한 열정과 같다. 영화로 치면 무성영화고 음악이면 클래식이다. 라면을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은 라면에 김치나 계란 등 라면 봉지 안에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넣어 먹는 것은 라면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던데, 어쩌면 국수에 돼지고기가 빠져 있고 양념과 함께 수육을 먹는 것은 흑돼지 삼겹살에 대한 예의가 아닌지 모른다. 제주에 오면서 염두에 둔 음식도 얼마 안 되는 마당에 매끼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고기국수와 돔베고기, 돼지두루치기를 먹을 때 빼고는 모두 흑돼지 삼겹살을 먹었다. 맛이 어땠냐고 묻는 건 우문이지 않을까.

영화 ‘쿵푸팬더’에서 팬더는 아버지가 만드는 국수의 레시피를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맛있는 국수에는 분명히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팬더의 아버지는 영화 말미에 그 비밀을 팬더에게 말해준다. 레시피 따위는 없으며 모든 것은 다 네 믿음 때문이라고. 네가 스스로를 드래곤 워리어라고 믿으면 바로 드래곤 워리어라는 해안이다. 알듯 말듯 한 말이지만 나의 제주도 돼지고기 순례도 비슷한 것 같다. 어쩌면 고기국수나 돔베고기, 흑돼지는 서울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다. 그래도 제주도라서 특별했다면 아름다운 제주도 풍경과 동행한 사람, 무엇보다 흑돼지 삼겹살에 대한 나의 절절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초상권, 당사자 동의 여부 꼭 확인해야



박혜진
부산 경남사무소장

모 케이블방송사는 지역 영세 상인의 번영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에게 보다 좋은 음식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지역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해오고 있었다. 담당 PD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파는 ‘착한’ 지역의 맛집을 선정해서 방송했다.

방송사는 특별히, 여름 기획으로 ‘팔빙수’ 편을 제작하기로 정하고, 재래시장에서 정직하게 전통적인 팔빙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를 섭외했다. 촬영 당일, 마침 젊은 여성 세 명이 팔빙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하여 팔빙수 제조방법 등과 함께 팔빙수 편의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팔빙수 편은 방송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세 명의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초상권이 문제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방송사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팔빙수를 먹는 모습을 촬영 보도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팔빙수는 찍을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얼굴이 보도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빙수를 촬영하는 중간에도 자신들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이 아닌지 재차 확인했으며, 방송사측으로부터 팔빙수만 찍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추후 자신들의 모습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방송사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방송 태도를 비난했다.

게다가 신청인 중 한명은 얼굴이 방송됨으로 인해 알리고 싶지 않은 성형수술 사실이 공개돼 주위로부터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며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심리 전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촬영을 거부했었다고 쿨하게 인정했다. 먹거리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먹는 장면을 살리기 위한 욕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촬영을 거부하거나 촬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자신들의 모습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 즐거운 추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피신청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우려와는 달리 피신청인은 필자와 여러 번 통화하면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조정 당일에도 동의 없이 신청인들의 초상을 촬영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한 다양한 조정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초상 공개로 인한 피해와 방송사측의 안이한 태도를 거듭 지적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담당 중재부는 기존 조정 사례를 참고하고, 피신청인의 매체 영향력과 방송 노출시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였고, 당사자들이 중재부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피신청인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동안의 보도 관행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신청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신청인이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조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노력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사소한 분쟁조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라며, 지역방송사로서 지역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주길 기대해본다.



COMMISSIONERS

추기석전(秋期釋尊) 봉행에 초헌관(初獻官)으로 분향



추기석전대제에 참석해 초헌례를 집전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

권성 위원장이 9월 28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열린 추기 석전 대제에서 초헌관으로 제례의 첫 잔을 올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인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文廟)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초헌관은 종묘제례 등에서 세 차례 헌작을 하는 삼헌(三獻) 중 첫 번째로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헌관 중 으뜸이다.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임금이 초헌관 역할을 수행했다. 석전대제는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의 향교에서 공자의 기신일인 매년 양력 5월 11일과 탄강일인 양력 9월 28일에 동시에 봉행된다.

이날 봉행은 초헌관인 권성 위원장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로 시작해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헌작례 차례로 이어졌으며, 이어 초헌관이 음복위에서 음복 잔을 마시는 음복례가 끝나고 폐백과 축문을 불사르고 땅에 묻는 망료례를 끝으로 마쳤다.

공자 탄강(誕降) 256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석전대제는 성균관이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성균관대학교가 후원했다.



성균관 추기석전에서 초헌관을 맡아달라는 확인서인 망기(望記)를 전달받고 있는 권성 위원장(2013년 9월 16일)

‘네버다이 버터플라이’ 영화에 카메오 출연

장진훈 위원(서울 제2중재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 영화에 출연했다. 장 위원은 아들인 장현상 감독이 연출한 ‘네버다이 버터플라이’에



서 고등학교 선생님 역으로 카메오 출연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재학 중인 장현상 감독의 이 작품은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새로운 시선’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네버다이 버터플라이’는 학교 ‘짱’의 괴롭힘을 받던 소문난 ‘찐따’ 학생이 고3 시작과 동시에 전학온 싸이코 친구를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변해간다는 유쾌한 학원물이다. 이 영화는 10월 17일 개봉 예정이다.

위원회 소식

NEWS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10월 30일 실시되는 2013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선거기사심의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를 설치했다. 위원장 박기동은 선거일 전 60일인 8월 3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11월 29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초청 강연 실시



위원회는 9월 6일 김해원 포스코 미래창조 아카데미 강사를 초청해 ‘효과적인 강의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위원회 직원들의 강의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몽골, 한국의 조정중재제도 모델에 '관심' 집중

– 몽골 유력 언론인 10명 언론중재위 방문

S.Gantogoo 몽골신문협회장 등 몽골의 유력언론인 10여 명이 9월 11일 위원회를 찾았다. 위원회를 방문한 언론인들에게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몽골언론인들은 위원회의 조직 체계과 조정절차 그리고 조정사건 내용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몽골에도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학철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위원회의 언론분쟁 해결 절차는 신속하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몽골에도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의 한·몽 미래지향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S.Gantogoo 몽골신문협회장, B.Yumurtogoo ZuUnii Medee 부사장, B.Bat-Orgil MNC TV 사장 등 언론인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를 찾은 몽골 언론인들이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강연을 듣고 있다.



정학철 부위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몽골 언론인들이 간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5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 참석



AIPCE 연례회의에 참석한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올해 주관자인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Arik Bachar(오른쪽에서 세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영준 위원, 홍숙영 위원, 김재원 위원, Arik Bachar 사무총장, 오광건 사무총장, 심영진 교육본부장)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제15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 연례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손영준 위원, 홍숙영 위원, 김재원 위원과 오광건 사무총장, 심영진 교육본부장, 이홍길 차장보가 참석했다.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50주년 기념식을 겸한 이번 연례회의에는 '변화하는 언론과 언론평의회', '사이버시대의 사생활', '언론의 자유와 윤리적 딜레마' 등 언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분쟁지역에서의 보도'와 '인터넷 댓글의 남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차기 AIPCE 연례회의 유치를 신청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유럽언론평의회 제정 체성 유지를 이유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 차기 개최국을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회원국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는 한편 한국이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면 AIPCE도 가까이 참석하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내년도 제16차 AIPCE 연례회의 서울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중인 홍숙영 위원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연예인 팬클럽 회원, '악플러 고소 모금비용' 착복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연예인 팬클럽의 잘못된 '조공' 문화를 보도하면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예인과 팬을 비방하던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모금하던 한 팬이 모금비용을 착복해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모금을 담당했던 신청인들은 모금한 돈은 모두 소송 비용에 사용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와 증빙 자료를 근거로 볼 때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하라고 조정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 사생활 침해 사례 | 사실혼 관계가 아닌 부부를 진짜 부부라고 방영한 방송사에 정정보도와 200만원 배상 결정

B방송사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4쌍의 부부로 출연한 사람들 중에 가짜 부부를 찾는 방송을 했다. 신청인은 방송에 '진짜 부부'라고 소개된 한 쌍 중 '결혼 45년차 부부'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내연의 관계이고 신청인이 법률적으로 배우자라며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여러 언론사에서 이미 부부로 소개된 바 있어 출연 요청했을 뿐 법률혼 관계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중재부는 양 당사자간의 사실 관계에 다툼이 없고 방송사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 정정보도와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현철 _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금림씨 인터뷰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국내 드라마가 시청률을 의식해 진정성과 작품성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평론가 상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드라마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시장과 함께 더욱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류문화의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콘텐츠산업과 방송작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단막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뷰에서 언급되었지만, 작가들이 드라마 대본을 쓸 때 일어날 수 있는 명예훼손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방송작가협회와 꾸준한 교류와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숙 _ 9월호 <초상권 동의범위와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을 읽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예비법조인을 상대로 모의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나름대로 급속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비해 법적소양을 확대하고 ADR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달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법조인들이 법률과 과거의 판례에만 의존하기에는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기에 현실적인 부분과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의 심정과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 사안에 대해 모의토론회를 열어 예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김규연 _ 9월호 인문학 산책 <삶은 기억과의 전쟁 혹은 기억을 위한 투쟁이다>를 읽고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학문적 업적과 고상한 인격을 다시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지만 죽음을 당하더라도 인물 됨됨이와 학문 발자취의 업적은 길이 두고 두고 남을 것이며 결국 기억을 통해 살아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살아 있을 당대 뿐 아니라 사후에도 오랫동안 평가 받고 후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살아있는 동안 늘 올바르고 건전하며 도덕적이고 품격있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한 평생 학문을 향한 그의 열정과 노력, 소탈함이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R 교육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 기법에 관하여 공무원, 교사,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언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지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설득기법과 조정전략

조정에 필요한 설득의 주요 법칙들을 무엇인가? 설득적인 말하기 기법,
분쟁 당사자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 설득을 위한 환경조성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영화, 고전 등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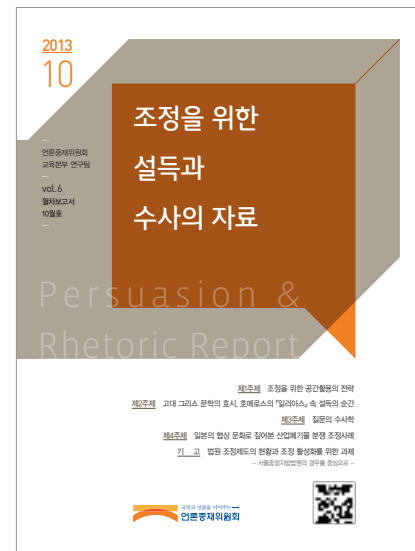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어떻게 분쟁을 슬기롭게 이겨냈을까?
역사 속 위인들의 결단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어떠했을까?
동서고금의 설득의 장면에서 오늘날 조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수사학 이론과 조정

동·서양 철학자, 사상가들의 설득 및 수사 이론을 조정 현장의 설득 상황에
비추어 분석, 연구한다.

각국의 ADR 사례와 제도 소개

세계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ADR의 태동 배경과 동향, 주요 ADR 사례 및
시사점을 짚어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격월간)
- 정 가 : 5,000원 (정기구독 : 연 30,000원)